



☐ 1월의 기상전망

- ▷ 기온전망 :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 강수량 전망 :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1주	1.2~1.8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2주	1.9~1.15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3주	1.16~1.22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4주	1.23~1.29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최근10년(2006~2015) 1월 기상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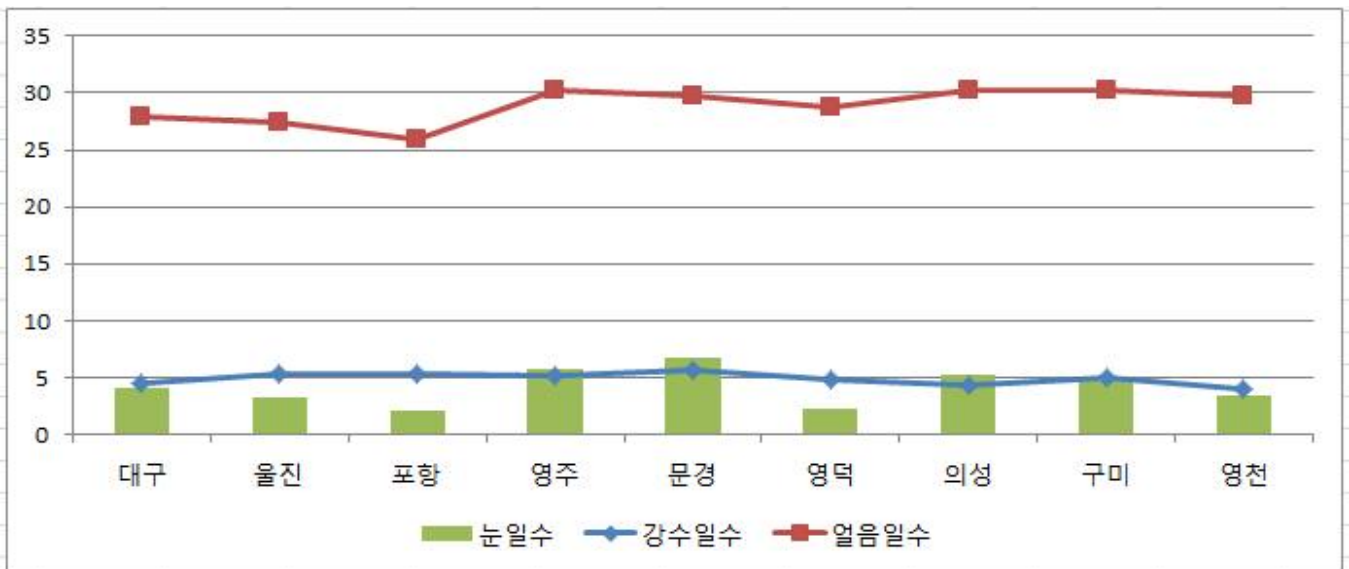
한파, 대설, 강풍·풍랑 주의

○ 기상특성

-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연중 가장 추운 시기로, 경북북부, 서부내륙 산간지역은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눈이 자주 내림. 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 시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기도 함
-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아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이 있음

- **한파** :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달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보리 등 농작물 동해, 육상 및 연근해 양식장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경북서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며, 북동기류 유입 시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림. 한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 전지역에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붕괴, 교통안전 등 제설 대책이 필요함
- **강풍과 풍랑** : 강한 북서풍이 자주 불게 되므로,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간판,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하고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대구·경북 평년기간 1월 **평균** 기상현상일수(일)

현상일수	대구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강수일수	4.5	5.4	5.4	5.1	5.7	4.8	4.3	5.0	4.0
결빙일수	27.9	27.4	25.9	30.3	29.8	28.7	30.2	30.2	29.8
눈일수	4.1	3.3	2.1	5.8	6.7	2.3	5.2	5.0	3.5



이달의 절기

소한[小寒]



시기	양력 1월 5일
의미	양력으로는 해가 새롭게 바뀌고 처음 맞게 되는 절기로, 이름으로 보면 대한(大寒) 때 가장 추울 것 같지만,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소한(小寒)때에 추운 경우가 더 많음
풍습	옛 사람들은 소한 15일간을 5일씩 3후(三後)로 세분하여, ① 기러기가 북(北)으로 돌아가고, ②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③ 꿩이 운다고 하였음
속담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소한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

대한[大寒]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큰 추위 “대한(大寒)”



시기	양력 1월 20일
의미	가장 추운 때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며, 겨울을 매듭짓는 절후로 보아, 대한의 마지막 날을 절분(節分)이라 하여 계절적으로 연말일(年末日)로 여겼음
풍습	대한 밤을 해넘이라 하여, 콩을 방이나 마루에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음
속담	“대한 끝에 양춘(陽春)이 있다”, “소한 얼음, 대한에 다 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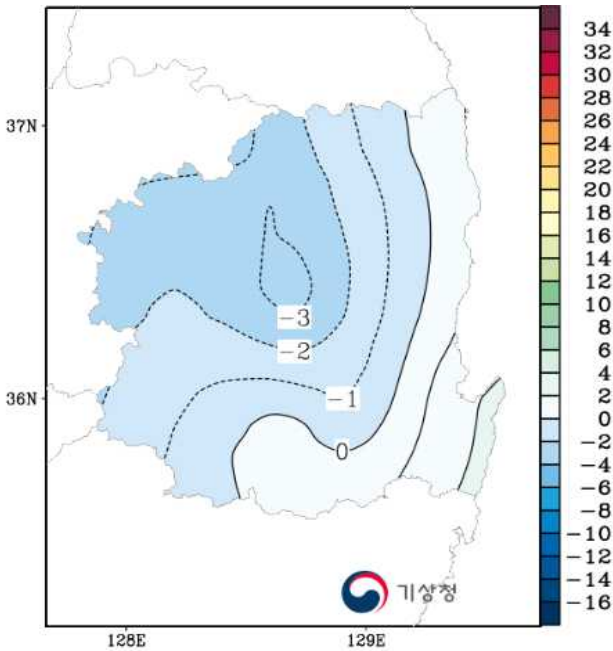
1월 대구·경북 지점별 평년기온 및 강수량

지점별 기후평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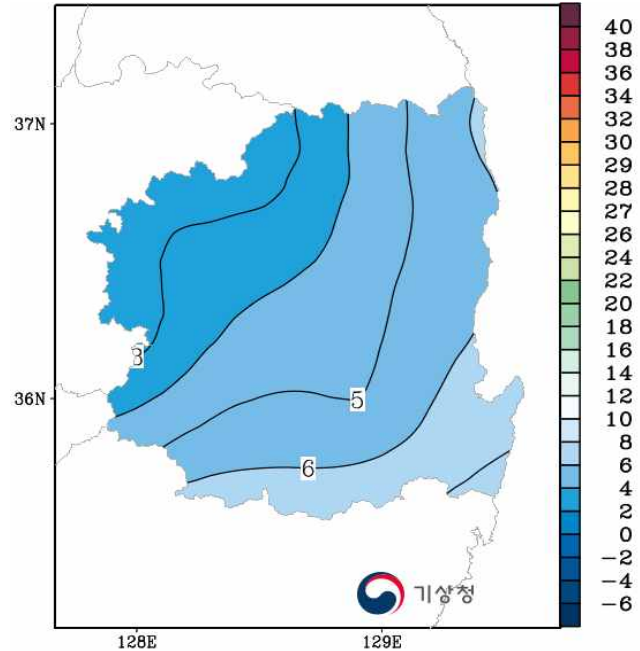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요소	대구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기온	0.6	1.0	1.8	-2.9	-2.0	0.7	-3.5	-1.3	-1.0
최고기온	5.5	6.2	6.5	2.4	3.0	5.7	4.3	4.3	5.0
최저기온	-3.6	-3.2	-2.0	-8.2	-6.6	-3.6	-10.0	-6.2	-6.4
강수량	20.6	46.7	36.5	19.8	22.8	37.4	18.0	20.2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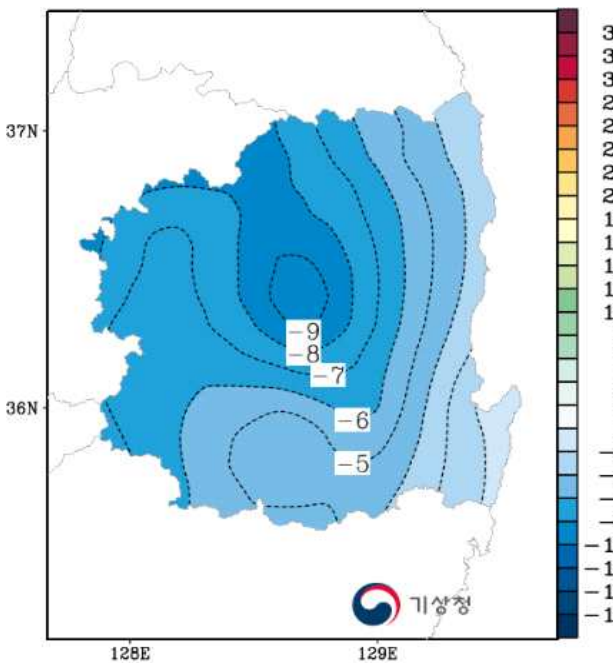
※ (평년기간 : 1981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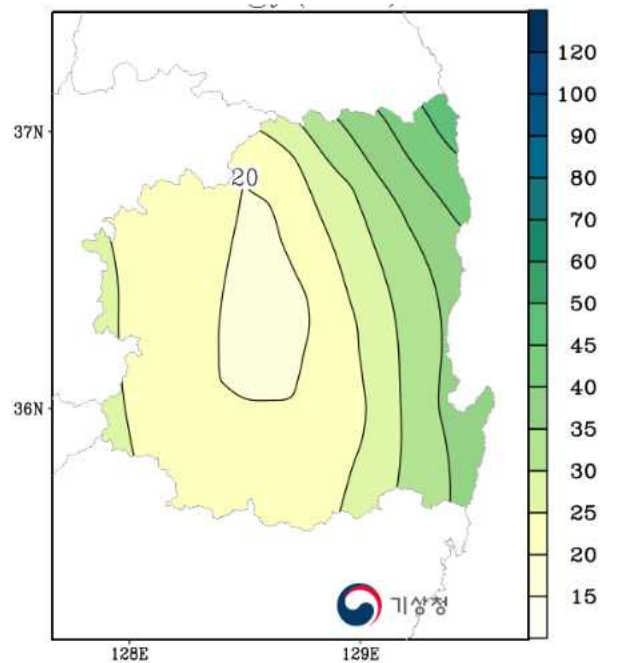
<좌> 1월 평균기온 분포도(평년)



<우> 1월 최고기온 분포도(평년)



<좌> 1월 최저기온 분포도(평년)



<우> 1월 강수량 분포도(평년)

□ 1월 기후극값

요소		대구	울진	포항	영주	구미	안동	울릉도
기온 (°C)	일평균 기온 최고	13.8 (2002.01.15)	12.0 (2002.01.15)	13.5 (2002.01.15)	7.8 (2002.01.15)	10.2 (2002.01.15)	8.7 (1989.01.08)	11.0 (1960.01.04)
	일최고 기온 최고	16.5 (2002.01.15)	17.4 (2002.01.12)	17.5 (1997.01.01)	13.6 (1980.01.28)	15.3 (2002.01.14)	13.2 (2013.01.31)	14.9 (1997.01.01)
	일최저 기온 최저	-20.2 (1923.01.19)	-14.0 (2011.01.16)	-14.4 (1970.01.05)	-23.8 (1981.01.17)	-24.0 (1974.01.26)	-20.4 (2013.01.04)	-11.6 (1943.01.12)
강수량 (mm)	일강수량 최고	33.5 (1923.01.15)	52.7 (1992.01.06)	60.9 (1953.01.18)	37.5 (2013.01.21)	30.9 (1987.01.02)	61.0 (2002.01.15)	162.3 (1955.01.20)
풍속 (m/s)	일최대 풍속 최고	18.7 (1949.01.05)	31.7 (1997.01.01)	35.0 (1953.01.18)	21.7 (1998.01.19)	15.5 (1980.01.30)	15.3 (1988.01.24)	33.3 (1960.01.16)
	일최대 순간풍속 최고	27.3 (1980.01.30)	51.9 (1997.01.01)	34.0 (1976.01.07)	35.2 (1998.01.19)	17.7 (2003.01.05)	23.9 (1997.01.01)	45.0 (1971.01.04)
적설 (cm)	일최심 신적설 최고	51.0 (1953.01.18)	30.2 (2013.01.17)	28.7 (2011.01.03)	31.1 (1981.01.15)	27.3 (1974.01.21)	19.3 (1974.01.21)	150.9 (1955.01.20)
	일최심 적설 최고	55.4 (1953.01.18)	30.2 (2013.01.17)	28.7 (2011.01.04)	31.1 (1981.01.15)	29.3 (1974.01.21)	19.3 (1974.01.21)	293.6 (1962.01.31)

※ 일 최심 신적설 : 00시~24시 중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최대 깊이
 일 최심 적설 : 내려 쌓인 기간에는 관계없이 관측 시에 실제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

□ 기상재해 사례

○ 한파1(2011년 1월 15일~16일)

북극의 차가운 공기와 연해주지역의 한기가 강해져,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돌풍과 한기가 남하하여 대구는 30년만의 혹한이 나타났고, 경북의 일 최저기온 극값경신 지역이 많았음. 이로 인해 시설하우스 작물 고사와 생육장애, 난방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음

※ 일 최저기온 현황(단위:°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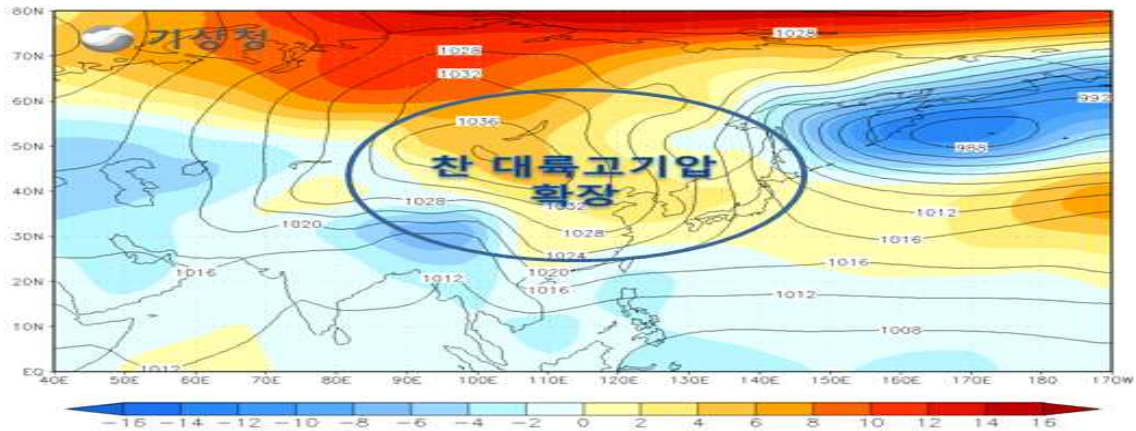
지점	대구	울진	포항	안동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15일	-12.3	-12.4	-12.1	-14.7	-16.3	-15.3	-15.5	-12.7	-15.1	-13.3	-13.9
15일평년값	-3.6	-3.2	-2.1	-7.3	-10.1	-8.4	-6.7	-3.8	-10.0	-6.3	-6.4
16일	-13.1	-14.0	-12.7	-16.8	-18.5	-16.8	-16.2	-15.1	-21.1	-13.9	-15.1
16일평년값	-3.6	-3.2	-2.0	-7.3	-10.3	-8.4	-6.7	-3.8	-10.1	-6.4	-6.7

○ **한파2(2013년 1월 3일~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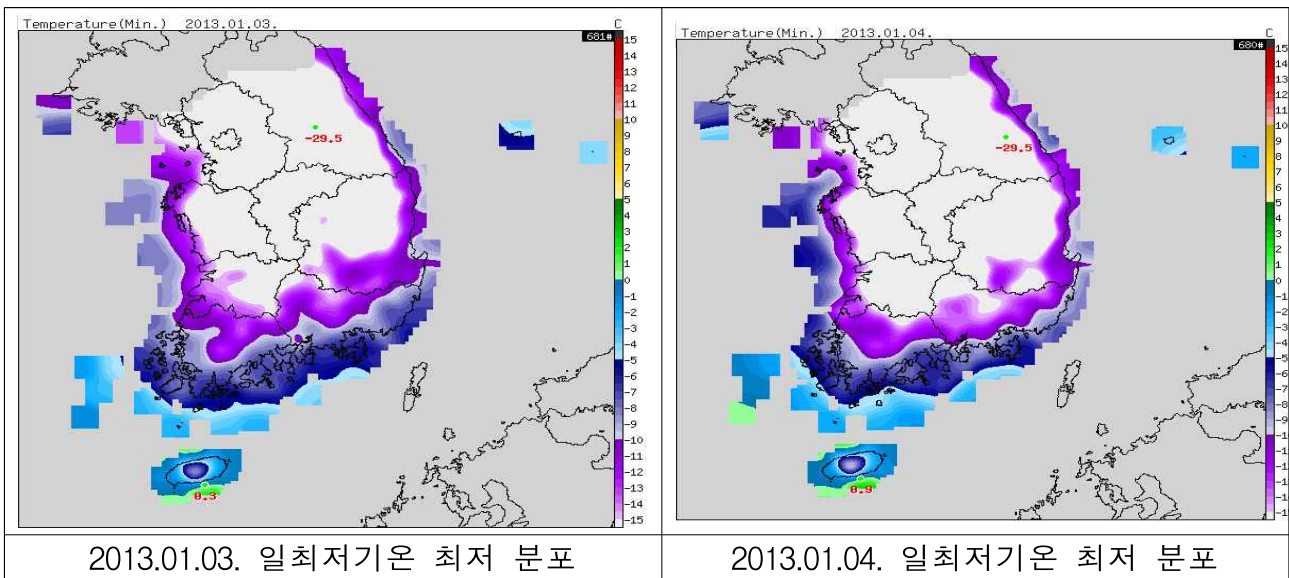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추운 날이 많아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편차(°C) : 평균 최저기온 -5.6). 한파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폭등 및 수도관 동파 피해가 있었음

※ **2013년 1월 3~4일 극값 갱신 현황(단위: °C)**

일시	일 평균기온 최저	일 최저기온 최저
1월 3일	상주 -11.2(극값 3위), 청송 -12.1(극값 3위) 의성 -14.4(극값 2위), 경주 -8.0(극값 3위) 봉화 -14.1(극값 5위)	상주 -15.4(극값 2위)
1월 4일	봉화 -16.6(극값 1위), 영주 -14.5(극값 1위) 청송 -13.1(극값 1위), 의성 -14.4(극값 1위) 경주 -6.9(극값 4위), 안동 -12.6(극값 4위)	안동 -20.4(극값 1위), 봉화 -25.0(극값 1위) 청송 -21.4(극값 1위), 의성 -23.2(극값 2위)



1월 상순(1.1~10) 해면기압 평균(실선)과 평년 편차(색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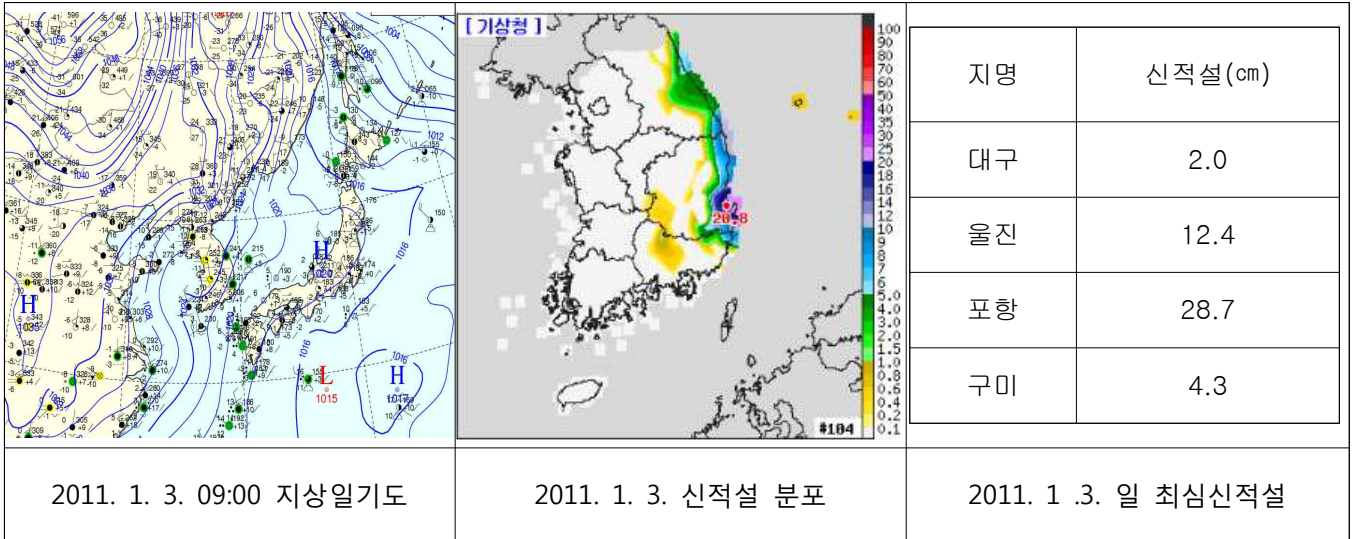


2013.01.03. 일최저기온 최저 분포

2013.01.04. 일최저기온 최저 분포

○ **대설1**(2011년 1월 3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북동해안지방에 북동풍이 계속 유입되어,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 특히 포항에는 28.7cm의 눈이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 교통통제가 있었음



○ **대설2**(2013년 1월 17일)

동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중국내륙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온도경도가 강화되어 바람이 강하게 불었음.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이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속초 32.5cm, 울진은 30.2cm 등 많은 눈이 내렸음

